

## 비즈 프리즘 | KT·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심사 통과할까?

# ‘산업육성 vs 법적하자’...금융위 심사 ‘안갯속’

양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금융위 법령 해석 등 신중 모드  
대주주 입성 실패면 자본확충 차질

KT와 카카오는 과연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 지위를 무사히 확보할 수 있을까.

KT와 카카오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핀테크 사업 육성의 장애로 꼽혀던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됐다.

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의 인터넷은행 자본 보유 한도가 최대 34%로 높아졌다. KT와 카카오는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자리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 두 기업 모두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최대주주 지위 획득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이 은행 자본 10%를 초과 보



KT와 카카오가 각각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바이오인증을 도입한 케이뱅크의 모바일슈랑스(왼쪽)와 카카오뱅크 이용 모습. 사진제공 |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유하려면 최근 5년 간 금융관련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KT와 카카오는 과거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았다.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으로 7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현재 황창규 KT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 역시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 음원가격 담합

혐의로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범수 의장 역시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주사위는 금융위원회로 넘어온 상황.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경미성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쉽게 결정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당국자와 외부 전문

가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관련 법령 해석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변경 여부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KT와 카카오가 대주주로 오르지 못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자본확충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 한눈으로 보는 경제

8일

코스피지수	2210.60	▲	+0.99
코스닥지수	751.92	▲	+0.21
日 닛케이 지수	2만1761.65	▼	-45.85
中 상하이 종합	3244.81	▼	-1.76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74	▲	+0.02
환율 (원·달러)	1144.50	▲	+6.50
국내금값 (원/그램)	4만7811.57	▲	+622.91



## “전보다 더 가까이서 동물 만나보세요” 에버랜드 ‘로스트밸리 와일드로드’ 오픈

삼성물산 리조트부문(대표 정금용)이 운영하는 에버랜드의 생태형 사파리 ‘로스트밸리 와일드로드’(Lost Valley Wild Road·사진)가 8일 오픈했다.

2013년 문을 연 로스트밸리는 5만 3000㎡ 규모에 전용차량을 타고 들어가 기린, 코끼리, 치타, 코뿔소 등 30종 300여 마리의 동물들을 볼 수 있는 시설이다. 이번에 6주년을 맞아 ‘와일드 로드’ 콘셉트로 리뉴얼했다. 바위 협곡, 동굴, 사바나 등 7개 테마존으로 구성된 로스트밸리 와일드로드는 자연 서식지와 최대한 가깝게 조성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을 관찰하는 생태 몰입형 사파리다. 기존 수로 대신 동물들과 더 가까운 육로 중심으로 동선을 바꾸어 수풀과 고사목이 우거진 길을 누비며 15분간 동물 탐험을 체험한다. 또한 고객들이 직접 탐험대가 된다는 스토리에 따라 탐험대를 이끄는 탐험대장 연기자도 등장하고, 그와 만나는 프리쇼도 추가됐다.

김재범 기자

## “4월 장사가 중요해요”...분주한 은행가

### 아동수당 유치전 치열...친환경 활동도

봄꽃이 만개하는 4월, 은행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달 들어 시중은행들은 아동수당 유치전에 불이 붙었다. 25일부터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약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IBK기업은행은

‘IBK W아이좋아통장’을 내놓았다.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족 모두 최고 연 4% 금리를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은 아동수당 수급 신청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아동수당 수급계좌 신청 이벤트’를 연다. 은행들이 아동수당 고객 유치에 적극적인 것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신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아동 명의 계좌를 가입할 경우에는 미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2일 지구의 날에 맞춘 친환경 활동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KB맑은하늘적금’을 출시했다. 종이통장 미발행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하면 최고 연 1.0%포인트 우대금리와 최대 2억 원을 보장하는 무료 보험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는 카카오페이와 함께 카드 영수증 디지털화에 나섰다. 앞으로 신한카드를 사용하면 종이 영수증 대신 카카오페이의 전자 영수증 저장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보



IBK기업은행의 IBK W아이좋아통장. 사진제공 | IBK기업은행 호에 선례로 남기겠다는 게 신한카드 측 설명이다. 정정욱 기자

## 경제현장.jpg

### “지름 20cm, 대왕 모카빵 맛 보세요”



현대백화점이 10일까지 판교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로티 서울' 팝업스토어를 열고 다양한 크기와 맛의 모카빵을 선보였다. 모카 크림이 가득 채워진 지름 20cm 이상의 로티킹을 비롯해, 초코 로티, 크림 치즈 로티, 버터 로티 등 총 5가지 맛을 선보였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현대백화점

## “말로만 무제한?” KT·LGU+ ‘5G 불완전 무제한’ 논란

KT와 LG유플러스의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가 ‘불완전 무제한’ 논란에 휩싸였다. KT와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완전 무제한’이라고 밝힌 요금제 또는 프로모션 요금제를 내놓고 5일부터 일반 5G 가입자를 받고 있다. 하지만 8일 업계에 따르면 5G 이용요금 등에 이틀 연속 일정량의 데이터를 초과사용하면 속도를 제어하거나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KT는 데이터 공정사용 정책에 2일 연속으로 하루 사용량이 53GB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Mbps로 데이터 속도 제어를 적용하고 이용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LG유플러스도 이용

약관에 2일 연속 하루 50GB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을 포함해 해지 또는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상업적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독점으로부터 일반 고객의 데이터 이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며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두 회사처럼 데이터 완전 무제한(프로모션)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이러한 제한 조항이 없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스포츠산업 스타트업 참가하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전문 액셀러레이터 상상이비즈는 30일까지 스포츠산업분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스포츠 산업 서비스 및 제품을 가진 예비 창업자나 5년 미만의 스타트업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8팀을 선발하며 팀당 최대 3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참여성고가 우수한 기업에는 1000만 원 이상의 직접투자도 한다.

상상이비즈는 공공기관 및 단체와 협업하는 전문 액셀러레이터로 2018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교육·지원했던 스타트업 4곳에 1억6000만원 시드 투자했고, 이어 2곳에 7억원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

정정욱 기자 sadzoo@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홈플러스-P&G ‘유소년 풋살 페스티벌’ 홈플러스와 한국P&G가 6월8일까지 ‘2019 플레이 컵 유소년 풋살 페스티벌’(사진)을 진행한다. 홈플러스 일산점, 부산가야점, 동대문점, 울산남구점, 전주완산점 등 5개 점포의 HM 풋살 파크에서 진행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유소년 축구클럽 120개 팀, 선수 1200명이 참가한다.

## 현대카드 ‘인공지능-자동응답’ 도입

현대카드가 고객센터에 ‘인공지능-자동응답시스템’을 도입했다. 대기시간 없이 인공지능 상담원이 바로 상담을 진행한다. 선결제, 한도조회, 한도조정, 청구·입금 내역 확인, 신규 비밀번호 등록, 비밀번호변경 등 고객 이용 빈도가 높은 6개 항목에 적용했다. 기존 ARS 고객 중 6개 항목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인공지능 상담원은 최대 고객 100명까지 동시 처리가 가능하며 하루 최대 3000통화를 응대한다.

정정욱 기자